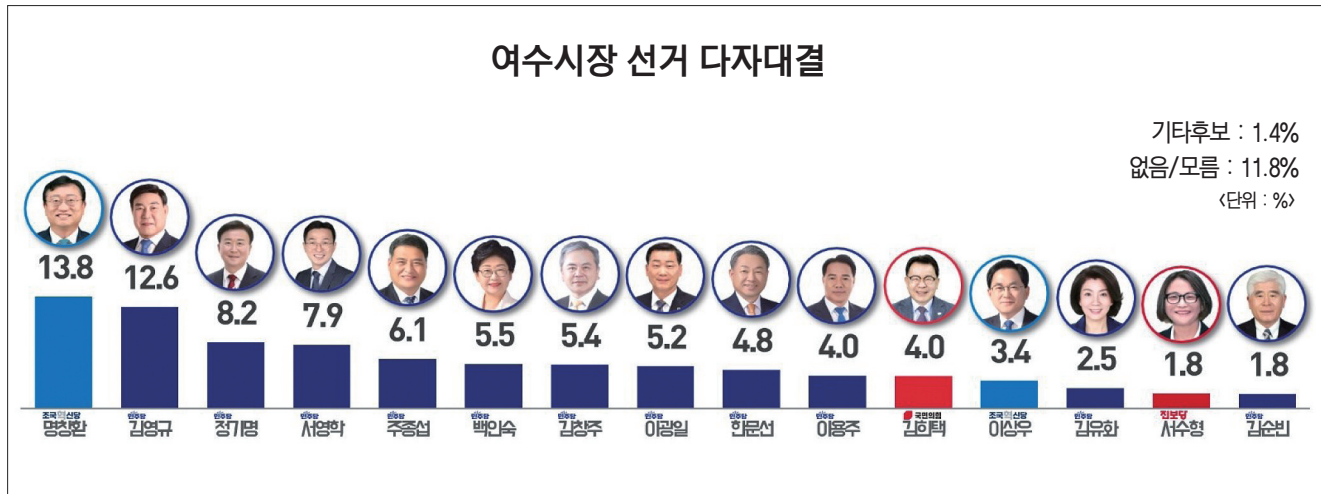


명창환 13.8%·김영규 12.6% 1.2%p차 초접전… 후보 난립



차기 여수시장 자리를 두고 명창환 전 전남도 행정부지사와 김영규 전 여수시의 회 의장이 오차범위 내에서 선두 경쟁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선두권 후보 간 격차가 크지 않은 데다 중위권 후보들의 지지율도 고르게 분포되면서, 특정 인물에게 지지가 쏠리지 않는 다자 구도가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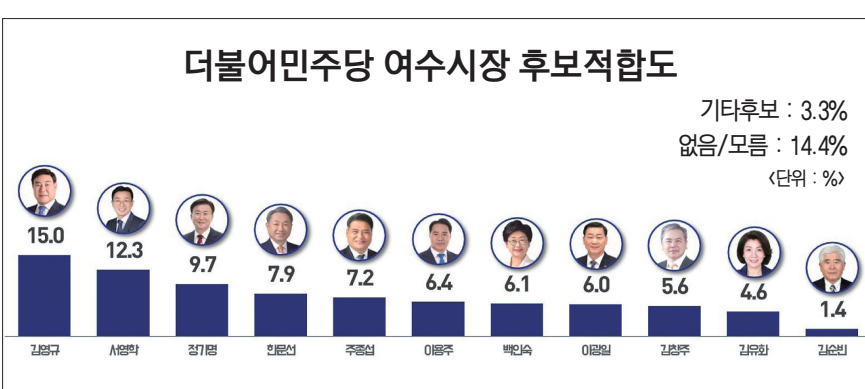
5일 광남일보와 KBC광주방송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서치뷰에 의뢰해 지난 2~3일 이틀간 여수시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성인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여수시장 다자대결 지도에서 명창환 전 전남도 행정부지사가 13.8%로 가장 높은 지지율을 보였다. 김영규 전 여수시의회 의장은 12.6%로 1.2%p 격차로 선두를 다했다.

현역인 정기명 여수시장은 8.2%를 기록해 선두권을 추격하는 3위 그룹을 형성했으며, 서영학 전 대통령비서실 행정관이 7.9%로 근소한 차이를 보였다. 주중섭 전 전남도 의원은 6.1%의 지지를 얻었다. 이들 후보군은 선두권과 일정한 격차를 보이고 있으나, 유권자 인지도 확대나 선거 국면 변화에 따라 순위 변동 가능성이 남아 있는 범주로 분류된다.

중위권 이하 후보군의 지지율도 비교적 고르게 분포됐다. 백인숙 현 여수시의회 의장은 5.5%, 김창주 전 여수경영인협회 회장은 5.4%, 이광일 전 전남도의회 부의장은 5.2%를 기록했다. 이어 한문선 여수상공회의소 회장 (4.8%), 이용주 전 국회 의원 (4.0%), 김희택 국민의힘 여수를 당 협위원장 (4.0%)이 뒤를 이었다.

또 이상우 조국혁신당 여수시 지역위원장은 3.4%, 김우화 전 여수시도시관리공단 이사장은 2.5%로 나타났으며, 서수형 진보당 여수시 지역위원장과 김순봉 전 여수시의회 부의장은 각각 1.8%를 기록했다. 기타 후보는 1.4%였다.

출마 가능 인사가 15명에 달하는 상황에서 특정 후보에게 지지가 집중되기보다는, 후보군 전반에 걸쳐 지지세가 분산되는 양상이 뚜렷하게 나타난 것이 이번



정기명 8.2%·서영학 7.9%… 중위권도 고른 분포

‘다자구도’ 유지… 선거 막판 각종 변수 가능성도

조사 결과의 특징이다. ‘없음·모름’ 응답은 11.8%로 집계됐다. 이는 아직 특정 후보를 지지하지 않거나 판단을 유보하고 있는 유권자가 적지 않다는 의미로, 향후 선거 일정이 본격화되면서 후보 인지도 상승이나 지역 현안 부각에 따라 지지를 이동이 나타날 가능성을 시사한다.

특히 다자 구도에서는 유보층의 향배가 선두권 경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권역별 분석 결과에서도 후보별 지지 기반 차이가 확인됐다. 1권역에서는 김영규 전 의장의 지지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고, 2권역에서는 후보 간 지지율이 비교적 고르게 분산됐다. 3권역에서는 명창환 전 부지사가 다른 후보들보다 우위를 보였다.

이는 여수시 내부에서도 권역별 생활권과 지역 여건 차이에 따라 후보 선택 양상이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연령대별로는 명창환 전 부지사가 40대와 50대, 60대에서 비교적 안정적인 지지를 확보한 반면, 김영규 전 의장은 30대와 70대 이상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응답률을 기록했다. 정기명 현 시장은 특정 연령대에 치우치기보다는 전 연령층에서 고른 분포를 보였다. 일부 후보는 특정 세대에 서만 제한적인 지지를 얻는 양상도 확인

됐다. 이는 후보별 정치 이력과 활동 무대, 인지도 형성 과정이 세대별로 다르게 작용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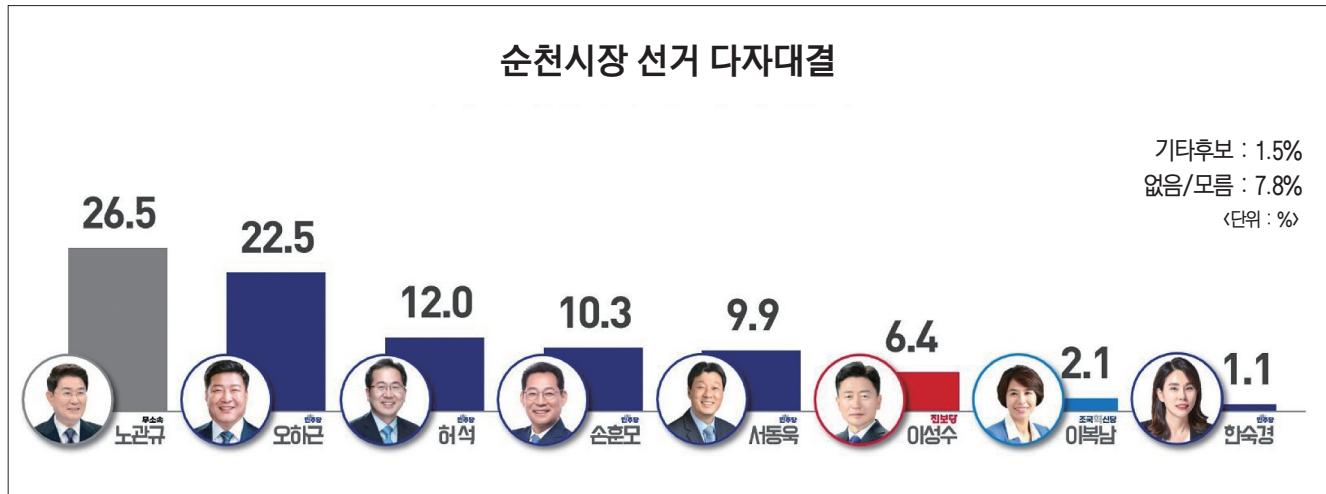
더불어민주당 후보군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결과, 김영규 후보는 15.0%로 가장 높은 지지를 기록했다. 다음으로 서영학 전 행정관이 12.3%, 정기명 현 시장이 9.7%로 뒤를 이었다. 김우화 전 이사장, 주중섭 전 도의원, 이용주 전 의원, 이광일 전 부의장, 김창주 전 회장, 김순봉 전 부의장 등도 한 자릿수 적합도를 기록하며 후보군을 형성했다. ‘없음·모름’ 응답은 14.4%로 나타났다.

이는 민주당 후보 선택 역시 아직 확정적이지 않으며, 향후 경선 국면에서 후보 간 경쟁과 인지도 변화에 따라 유권자 선택이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본선 다자대결과 마찬가지로 당내 경쟁 구도 역시 일정 기간 유동적인 흐름을 이어갈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 이번 조사에서 확인됐다.

이번 조사는 무선 ARS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4%p다. 응답률은 7.0%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승훈 기자 photo25@gwangnam.co.kr
여수=송원근 기자 swg3318@gwangnam.co.kr

노관규 선두 속 오하근 추격 ‘다자구도’ 선거 판세 유동성



오는 6월 3일 치러지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약 4개월 앞두고 실시된 전남 순천시시장 여론조사에서 현직인 노관규 시장이 선두를 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상위권 후보 간 격차가 오차 범위 내에 있어 선거 판세가 쉽게 고착되지 않고 혼전 양상이 이어질 것으로 분석된다.

5일 광남일보와 KBC광주방송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서치뷰에 의뢰해 전남 순천시 만 18세 이상 유권자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순천시시장 다자대결 지도에서 현직인 노관규 시장이 26.5%로 가장 높은 지지를 얻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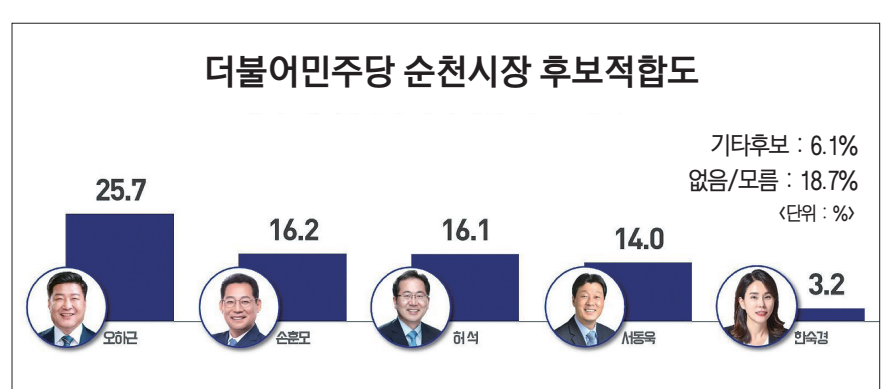
이어 오하근 후보 22.5%, 허석 후보 12.0%, 손훈모 후보 10.3%, 서동욱 후보 9.9% 순으로 나타났으며, 기타 후보는 11.1%. ‘없음·모름’ 응답은 7.8%로 집계됐다. 특히, 출마자로 거론되는 후보자들 가운데 노관규 시장과 오하근 후보 간 격차는 4.0%p로, 표본오차(95% 신뢰수준 ±4.4%p) 범위 안에 있어 우열을 단정하기 어려운 접전 양상을 보였다.

이번 조사에서 눈에 띄는 점은 계층별 후보자 지지 기반의 차이가 비교적 뚜렷하게 나타났다.

노관규 시장은 70대 이상에서 37.3%의 지지를 얻으며 강세를 보였고, 남성층에서도 29.5%로 가장 높은 지지율을 기록했다. 특히, 40대와 50대에서는 후보 지지율이 노관규 시장(23.5%)과 비슷한 수준의 지지를 얻으며 팽팽한 경쟁을 벌였다.

연령대별로는 30대에서 오하근 후보가 27.9%로 비교적 높은 지지를 얻었고, 허석 후보도 20%를 넘는 지지를 확보했다. 특히, 40대와 50대에서는 후보 지지율이 고르게 분산되며 혼전 양상이 두드러지는 양상을 보였다.

지역별로는 노관규 시장이 구도심과 일부 농촌 지역에서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인 반면, 오하근 후보는 신도심과 젊은 유권자가 많은 지역에서 경쟁력을 나타냈다. 이 같은 지지 분포는 향후 선거 국면에



노 26.5% vs 오 22.5%…4%p 차 오차범위 접전

허석·손훈모·서동욱 중위권 형성…다자구도 양상

서 지역별 조직력과 현장 행보가 판세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시사한다.

이와 함께 순천이 더불어민주당 강세 지역이라는 특성을 감안하면, 민주당 후보 적합도 조사 결과가 사실상 본선 판세를 가능하는 지표로 해석될 수 있다.

민주당 후보 적합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오하근 후보가 25.7%로 가장 높은 적합도를 기록했다. 이어 손훈모 후보 16.2%, 허석 후보 16.1%, 서동욱 후보 14% 안팎 순으로 나타났다.

‘없음·모름’ 응답은 18% 안팎으로 집계돼, 경선 국면에서도 부동층이 일정 규모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자대결과 민주당 후보 적합도 조사 모두에서 상위권 후보 간 격차가 크지 않고, 일정 규모의 유보층이 존재하는 만큼, 향후 선거 일정이 본격화될수록 판세는 유동적으로 움직이고, 후보 간 경쟁 양상은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지역 정치권에서는 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후보 단일화 여부와 조직 결집, 합종연횡 가능성 그리고 정책 이슈 선점 여부가 향후 지지율 변동의 핵심 변수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유보 응답층이 5명 중 1명 수준으로 나타난 점은 향후 판세의 최대 변수로 꼽힌다. 아직 특정 후보를 지지하지 않거나 판단을 유보한 유권자들이 적지 않은

만큼, 향후 후보별 정책 제시와 메시지 전달력, 지역 현안 대응 방식에 따라 표심 이동이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이와 함께 정당 지지층별로도 민주당 지지층을 포함해 대부분의 응답층에서 정당보다 후보 개인의 실질적 능력을 중시하는 경향이 확인됨에 따라 향후 선거 국면에서 후보별 정책 경쟁과 지역 현안 대응력이 핵심 변수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순천의 주요 현안인 도시 재생, 정원·관광 정책, 교통·정주 여건 개선 등에 대한 후보별 해법 제시가 중도층과 부동층 표심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선거 일정이 본격화될수록 단순 지지보다 후보별 정책 전달력과 이슈 대응 속도가 판세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 분석이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본격적인 선거 국면에 접어들면 누가 순천의 현안을 가장 설득력 있게 제시하느냐에 따라 지지율이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 조사는 통신사 제공 가상번호를 활용한 100% ARS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응답률은 6.2%,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p다. 자세한 내용은 광남일보와 KBC 광주방송,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은지 기자 eunzy@gwangnam.co.kr
순천=박철석 기자 2556pk@gwangnam.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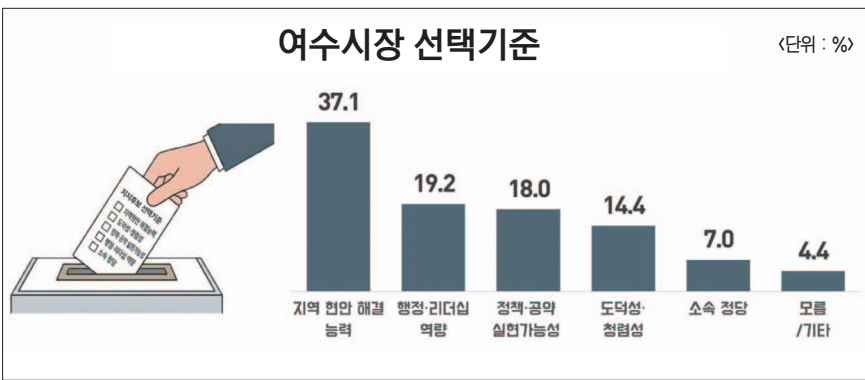
여수, 후보자 선택 기준은 ‘현안 해결 능력’

응답률 37.1%로 1순위

정책·공약 18.0% 그쳐

여수시 유권자들은 차기 시장을 선택하는 기준으로 정당이나 이미지보다 지역 현안을 얼마나 해결할 수 있는지를 가장 중요하게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광남일보와 KBC광주방송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서치뷰에 의뢰해 지난 2~3일 이틀간 여수시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성인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여수시장 후보를 선택할 때 가장 중점을 두는 기준’을 묻는 질문에 지역 현안 해결 능력이 37.1%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기록했다. 지역 현안 해결 능력 다음으로는 행정·리더십 역량이 19.2%로 나타났다.



19.2%로 나타났고, 정책·공약의 실현 가능성이 18.0%로 뒤를 이었다.

반면 도덕성·정렴성을 선택 기준으로 꼽은 응답은 14.4%로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었고, 소속 정당을 기준으로 삼는다는 응답은 7.0%에 그쳤다. ‘모름·기타’ 응답은 4.4%였다.

이러한 경향은 여수 전역에서 비교적 일관되게 나타났다. 1권역에서는 지역 현안 해결 능력이 37.5%로 가장 높았고, 2권역에서도 34.3%로 1위를 차지했다. 3권역 역시 39.2%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이승훈 기자 photo25@gwangnam.co.kr
여수=송원근 기자 swg3318@gwangnam.co.kr

순천시민, ‘지역 현안 해결 능력’ 우선 해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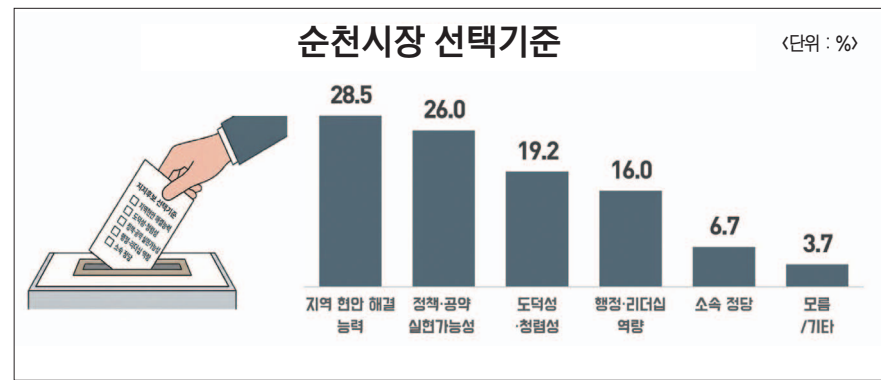
‘정책·공약실현’ 뒤이어

정당보다 후보 역량 우선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순천시 유권자들이 가장 중시하는 선택기준은 ‘지역 현안 해결 능력’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책 구호나 정당보다 지역 문제 해결 능력을 평가하겠다는 인식이 확인됐다.

광남일보와 KBC광주방송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서치뷰에 의뢰해 지난 2~3일 전남 순천시 만 18세 이상 유권자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순천시시장 선택 시 가장 중점을 두는 기준’을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28.5%가 ‘지역 현안 해결 능력’을 꼽았다.

이어 ‘정책·공약 실현 가능성’이



26.0%로 뒤를 이었고, ‘도덕성·정렴성’은 19.2%, ‘행정·리더십 역량’은 16.0%로 조사됐다. 반면 ‘소속 정당’을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선택한 응답은 6.7%에 그쳤다. ‘모름·기타’ 응답은 3.7%이었다.

연령대별로는 18·20대와 30대에서는 정책·공약의 실현 가능성을 가장 중요하

게 보는 응답 비율이 높았고, 40대에서는 현안 해결 능력을 중시하는 경향이 두드러졌다. 50대는 행정·리더십 역량을, 60대 이상에서는 도덕성과 정렴성을 상대적으로 더 중요하게 평가했다.

김은지 기자 eunzy@gwangnam.co.kr
순천=박철석 기자 2556pk@gwangnam.co.kr